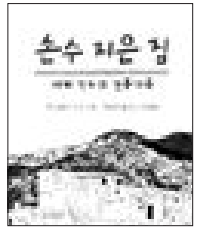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손수 지은집=전 세계 사람들이



각각 고향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 그곳의 특유한 환경과 생활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은 집을 소개한 책이다.

(현암사·7천800원)

▲로마와 르네상스의 나라, 이탈리아



이 이야기는 '피자와 파스타의 탄생지, 고대 로마제국의 본거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세계관광의 중심지' 이탈리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세움·9천원)

▲옛날 옛적에 수학이 말미아=초등학교



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주니어김영사·9천500원)

▲알래스카에서 쓴 바닷세 일기



국내 최초로 바닷새를 주제로 한 그림책. 조류생물학자인 저자는 연구선을 타고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를 조사한 과정을 그림일기로 담아냈다.

(사계절·1만원)

▲우리 아이 첫 놀이영어=처음 영어를 접하는



어린이들이 영어 동요나 동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솔수북·1만2천500원)

조각난 '추억의 삽화'속으로 시간 여행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상·하) 움베르토 에코

1980년에 출간된 소설 '장미의 이름'. 백과사전을 방불케하는 지식과 넘치는 상상력이 결합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천만부 이상이 팔린 히트작이었다.

기호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다섯 번째 소설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이 출간됐다.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도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

데뷔작 '장미의 이름' 이후 최후의 걸작으로 꼽는 작품이다.

'삽화 소설'이라는 이색적인 장르명을 달고 있지만, 이 소설은 단순히 삽화가 들어 있는 소설이 아니다. 오히려 삽화와 소설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소설 주인공은 밀라노에 살고 있는 59세의 고서적 전문가인 암브로시오 보노니. 일명 '암보'로 불리는 그는 심장혈관 계통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후 기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역행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공적인 기억, 백과사전적인 기억은 온전한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억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은갖 소설의 구절들이 머리 속에 떠오르고, 곱셈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점차 자신의 이름은 나올 듯 말 듯 허공에서 맴돌기만 한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억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딴 자신의 외손자 알렉산드르의 일은 아무 것도 모른다.

하나뿐인 달이 6개로 나뉘어지면...

무중력 증후군 율고은 지음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한겨레문학상은 그동안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권리의 '싸이코가 된다' 등 화제작을 탄생시켰다.

2008년 수상작인 율고은의 장편 소설 '무중력 증후군'은 하나뿐인 달이 6개로 분화하면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극을 그린 독특한 소설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황석영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엄청하고 대단한 상상력과 신선한 문체, 빠른 보폭의 사건 전개를 바탕으로 현대사회 군중의 소외감을 은유와 농담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출판·1만원)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4년 시드니 올림픽의 이야기를 담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을 펴냈다.

'마라톤 마니아'로 알려진 하루키는 한 잡지사로부터 올림픽 취재를 의뢰받고 23일간 시드니에 머무르며 원고를 썼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올림픽 관전기기가 아니다.

저자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선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 본 핸드볼 경기장의 풍경,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호주의 원주민 출신 선수가 폭 계매달을 목에 걸어야 하는 이유 등 올림픽의 다양한 풍광들을 유쾌하게, 때론 진지하게 풀어냈다.

(문학수첩·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日 작가가 취재한 시드니 올림픽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4년 시드니 올림픽의 이야기를 담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을 펴냈다.

'마라톤 마니아'로 알려진 하루키는 한 잡지사로부터 올림픽 취재를 의뢰받고 23일간 시드니에 머무르며 원고를 썼다.

저자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선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 본 핸드볼 경기장의 풍경,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호주의 원주민 출신 선수가 폭 계매달을 목에 걸어야 하는 이유 등 올림픽의 다양한 풍광들을 유쾌하게, 때론 진지하게 풀어냈다.

(문학수첩·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미오, 나의 미오'

문학에 대한 유서 깊은 일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문학은 밤(황)이나 칼이 될 수 있는가?'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이 질문은, 일단은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 영향력 역시 심리적인 회로를 경유한 간접적인 것이 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현실에 개입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지한 긍정으로 귀결되는 반전에 있다.

문학이 빵이나 칼이 될 수 있나



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보다 깊고 넓은 힘을 발휘한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내 이름은 베베 통스타킹'으로 친숙한 스웨덴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 '미오, 나의 미오'는 이 상상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보체가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머나먼 나라'의 임금님 아들인 미오 왕자가 된다.

문학 작품 속 판타지야 원래 리얼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환상의 세계이지만, 이 작품의 머나먼 나라는 성격이 애매하다.

이 애매함은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그의 의도는, 당연히 미오 왕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의 수많은 보체들에게, 판타지 동화의 규칙을 허물면서까지 따듯한 위로가 되고 싶은 작가의 사랑이다.

보육원에 버려진 보체의 결핍과 고통은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치유 불가능한 것이다. 그 고통과 결핍이 물질이나 어떤 사회적 조건에 의해 해결될 상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없는 부모를 만들어내지 못 하듯이, 문학의 상상력이 현실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어떤 결핍과 고통은 마주하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베봉기 (동화작가·광주대 교수)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편 ☎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發·리서치 선연!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토지매매, 상가매매, 상가임대.

생계형, 음식, 호프, 꼬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경쟁진단·인테리어.

금보부동산컨설팅. ☎ (대)261-6949, 011-602-2233. ▶ 상담매매, ▶ 분양부지매매, ▶ 건물매매, ▶ 고시원 및 월세주택매매.